



여선주씨(오른쪽)가 LA 매스터코랄 단원들에게 '한강수타령'의 한국어 가사의 발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처음 불러보는 민요 한 번에 합창 완성

LA 매스터코랄 '한국이야기' 리허설 현장

특유의 장단도 잘 살려 ... 발음연습 인상적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라고 한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악기도 목소리처럼 폭넓은 음색과 풍부한 감정을 표현해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최고의 악기'들이 모여 화음을 이루는 합창 공연을 들으면 감정이 흥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오케스트라 공연도 합창단이 함께 할 때 온전히 꼭 차는 느낌, 경건하고 위대하며 장엄의 극치를 이루는 연주가 되는 것이다.

지난 23일 저녁 LA 매스터코랄의 '한국 이야기' (Stories from Korea) 공연의 리허설을 참관했다. LA 매스터코랄은 명실공히 미 서부지역 최정상급의 합창단으로, 특히 초견(악보를 처음 보며 즉석에서 연주하는 것) 실력은 최고로 알려져 있는데, 말로만 듣던 그 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날은 3월6일 공연을 위한 세 번째 연습 날. '한강수타령'과 '경복궁타령'

'도나 노비스 파켄' '달아달아 밝은 달아'를 연습하는 날이다(통상 공연을 위해 6회 정도 리허설을 갖는다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연습 때는 '무궁화'와 '메나리' '아리랑 환상곡'을 초견했다고 한다).

그랜트 거슨 지휘로 리허설이 시작되자 과연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한강수타령이 들려왔다. 우리 같은 사람이 듣기엔 더 이상 연습할 것도 없고, 그 자체로 환상적인 콘서트였다. 그런데 그것이 생전 처음 불러보는 초견이라 했다. 몇 소절씩 나눠 부르거나, 파트별 연습도 전혀 없이, 각자 악보를 보면서 단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화음을 맞춰 노래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우리 민요 특유의 기락과 장단이 묻어나오는 노랫소리에 나도 모르게 어깨가 들쭉여질 만큼 이들의 연주는 완벽했다. 놀라움은 계속됐다. 다음 곡인 '경복궁 타령'에 이어 '도나



그랜트 거슨의 지휘로 '한국 이야기' 공연을 연습하는 LA 매스터코랄. 이 음악회를 위해 6회의 리허설을 갖는다.

노비스 파켄', 그리고 '달아달아 밝은 달아'로 이어지는 연습에서 모두 단 한 방에 합창이 완성되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은 감동을 넘어 전율스런 것이었다. 오로지 관건은 한국어 발음이라, 노래 한 곡이 끝날 때마다 한인 소프라노 단원 여선주씨가 단상에 나와 가사를

한 단어 한 단어 읽어주며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다. 악보에 영어로 표기된 발음의 부자연스런 부분들을 고쳐주고 정확한 한국식 표현을 알려주기 위한 시간이다. "여해요 어허야 열사함마 동게 디어 라 내 사랑이"(한강수타령)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산현이 밝아온다"(경복궁타령)

"옥도끼로 짝내어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짓고 양친부모 모세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달아달아 밝은 달아)

여선주씨가 우선 문장 단위로 읽고 나서 한 단어씩 발음해 보이던 60여 단원들이 한 목소리로 따라 읽는다. 어찌나 열심히 큰 소리로 따라 읽는지 마치 초등학교 국어시간 같기도 하고, 프로다운 열성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여씨는 재치 있고 재미있게, 정확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가장 우리말에 가깝도록 입모양, 혀 위치까지 가르치는 한편 단어의 뜻도 설명해 주고, 필요할 때는 일곡의 노래도 들려주면서 감탄이 나올 만큼 훌륭하게 이끌었다.

이들의 아름다운 소리가 디즈니 홀에 울려 퍼지는 공연을 생각을 하니 몹시 설렌다.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외국인인 LA 매스터코랄이 구성지게 불러주는 우리 노래와 장단, 우리민족의 한을 치유하는 음악이다.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그 노고와 가치를 알아줄 것인가.

(글 정승희 기자·사진 김지민 기자)

3월6일 공연 프로그램

▲메나리(Me-Na-Ri 우효원): 세계무대에서 각광받고 있는 우효원(인천시립합창단 정임작곡가)이 이리랑을 주제로 작곡한 창작곡으로, 객석과 무대의 공간을 활용해 홀 전체의 울림을 이용한 공간 합창음악이다. 이 곡은 2009년 3월 미국 합창지휘자협회(ACDA) 내셔널 컨벤션에 초대돼 생애이신한 반응을 얻었으며, 이어 앞서 이별 극장에서 본보 40주년 기념으로 열린 공연에서도 남가주 한인들의 열띤 박수를 받았다.

▲도나 노비스 파켄(Dona Nobis Pacem 이현철): 우효원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합창곡 작곡가 이현철의 이 곡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란 뜻의 라틴어 '도나 노비스 파켄'을 가사로 한국의 기락과 리듬(세마치와 자진모리장단)을 섞어 만든 신비하고 아름다운 곡이다.

▲한강수타령(김지수 편곡)과 경복궁타령(김희조 편곡): 미주한인 합창단들이 공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부르는 애창곡들로, 경쾌하고 흥겨운 우리 민요를 합

창곡으로 편곡한 것이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박정선): 정래 어린이 동요를 한국 합창음악의 대부인 박정선 단국대 교수가 합창곡으로 만들었다.

▲아리랑 환상곡(이호준): LA에서 활동하는 작곡가 이호준씨가 2009년에 쓴 8성부 합창곡. 이씨는 "아리랑 민요를 주제로 화성적으로 화려하게 재구성한 환상곡"이라고 소개하고 "LA 매스터코랄이 미주한인 작곡가의 곡을 연주하는 일은 처음이라 무척 흥분된다"고 말했다.

▲무궁화: 사론의 장미(Mugunghwa: Rose of Sharon, 마크 그레이): 미주한인 이산가족 김남수씨의 스토리를 소재로 분단 한국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40여분짜리 대작으로 코랄 칸타타와 연가곡, 바 이얼린 콘체토, 디아터 피스가 한데 결합된 작품이다. 음악과 시, 의식과 고백이 뒤섞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한민족의 치유를 기원하는 곡으로, 특별히 바 이얼리스트 제니퍼 고의 연주는 무당의 굿 한마당을 차려내면서 실내악 앙상블과 함께 자연과 우주가 베푸는 치유의 힘과 조화를 표현하게 된다.

"한국냄새 나는 창작곡·민요 소개"

선곡 도운 테너 김종민씨

3월6일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본보 특별후원으로 열리는 '한국 이야기' 공연을 위해 뒤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 중에 LA 매스터코랄 단원인 테너 김종민씨(사진)가 있다. 그는 이번 무대에 서지는 않지만 그랜트 거슨 지휘자를 도와 한국 합창음악에 대해 많은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며 1부 프로그램의 선곡과 셋업을 도왔다(2부는 '무궁화: 사론의 장미' 세계 초연).

합창지휘를 전공했고 선교합창단 '코랄레움'의 지휘자이기도 한 그는 자신이 소개한 많은 곡들 가운데 그랜트 거슨은 '한국냄새'가 나는 곡들을 택했다



며, "짧은 작곡가들의 창작곡과 편곡된 민요 합창곡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한인에게나 타인종 모두에게 굉장한 흥미를 줄 것"이라고 큰 기대를 나타냈다. 김종민씨는 12년 전 미국 예와 노스텍사스 대학에서 석사와 지휘로 학사 및 석사를 마쳤고 USC 대학원에서 합창지휘로 박사과정을 수료, 오는 5월 학위를 받는다.